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2016.05.19 | 강세진_새사연 연구이사 | wisdomcity@saesayon.org

예전에 의식주가 생활의 3대 요소라고 배웠던 기억이 난다. 주, 즉 집은 가장 끝에 붙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중요성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이 글이 모든 청년의 주거문제를 대표하기는 어렵겠지만, 2003년, 갓 스물이 된,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신입생이 혈혈단신으로 주거문제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려봄으로써 지난 10여 년 동안의 청년 주거 상황의 변화와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대학입학, 이제 자유? 그럴 리가

‘우아한 A’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서울소재 유명 대학교의 실용미술과에 진학하였다.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 어떻게 혼자 사느냐. 위험하니 기숙사 들어가거라.”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드는 엄마의 목소리가 고리타분하다 못해 사극대사처럼 들린다. 20평생 처음 집을 떠나 사는 게 약간의 두렵도 주지만 가정의 평안함에 비례한 간섭에서 벗어나는 건 충분히 설레는 일이었는데 김이 샌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얼핏 들은 기숙사 생활은 매력적이지 않았다. 기숙사는 생활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점호와 폐문이 있다. ‘(1)점호는 당직조교 및 총장에 의해서 실시. (2)일일점호는 매일 24시 00분에 실시.’ 점호가 무슨 뜻이냐고 선배들에게 물으니 군대에서 잠자기 전 인원점검을 하는 거라 한다. 외출과 외박에 대한 규칙도 있다. 주 3회 이상 외박을 할 경우에는 사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한 방을 4명이 같이 쓴다. 10살 때 내 방이 생긴 이후, 누군가와 같이 한 방을 쓴 적이 없는데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핑계거리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걸 고분고분 받아들인 이유는 저렴한 이용료 때문이다. 학교 밖에서 방을 구하는 것에 비해 기숙사 이용에 드는 돈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집에서 받는 용돈으로 지내야 하는 신입생 처지에 기숙사 신청에서 탈락하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었다.

📌 2003년. 기숙사 월 15만 원. <스물, 운수 좋은 가격>



낭만의 옥탑방? 고양이 얼어 죽는다

기숙사 생활은 의외로 좋았다. 어떤 친구들은 “가증스런 룸메이트 때문에 암 걸리겠다.” 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기도 했지만, 다행히 우리 방 멤버들은 성격도 좋고 적당히 깔끔해서 큰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었다. 그리고 A의 바로 위 침대를 쓰는 ‘발랄한 G’와는 꽤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미대생의 일상은 세간의 이미지와 다르게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다. 매주 쏟아지는 과제에 밤샘은 기본이라 학업 이외에 다른 여가를 찾는다거나 동아리활동을 한다거나 따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당연히 학기 중에는 알바를 하는 것도 어려워서 ‘2학기부터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리라.’ 는 다짐의 실현도 요원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도 못한 사이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났다.

방학 동안 틈틈이 알바를 해서 돈을 조금 모았지만, 2학년이 되어 다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면 방값으로 꽤 많은 지출이 들어서 궁핍한 생활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신입생 60%, 재학생 40% 비중으로 사생을 선발하기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경우 기숙사에 다시 들어가기 어렵다. 전교생이 2만 명인데 기숙사 수용인원은 1,500명에 불과하다. 예상대로 A는 선발에서 탈락했다.

대학가의 주거형태는 다양하지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전통적인 하숙이 있고 자취가 있다. 자취의 경우 과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방 하나에 세 들어 살던 것에서 원룸이라는 비교적 독립된 거주형태로 바뀌는 추세였다.

하숙은 숙식을 같이 제공하는 것이 장점이지만 어차피 실습과제 때문에 거의 매일 학교 작업실에서 야간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하숙집 밥을 꼬박꼬박 챙겨먹을 수 없다. 좋은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눈칫밥 먹게 될 우려도 있어서 하숙은 고려대상에서 제외.

자취방은 하숙과 비슷한 거주환경에서 식사를 알아서 해결하는 형태인데 저렴하면서 깨끗한 방 구하기도 힘들고 집주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은근히 거슬리고, 방법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

원룸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만큼 너무 비싸서 일단 제외하고 옥탑방을 알아보게 되었다. 옥탑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취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옥상에 있어서 좀 더 독립적일 거 같고, 얼마 전에 방영된 TV드라마의 영향으로 왠지 좋은 이미지가 생겼다. 물론 드라마와 현실이 크게 다르다는 건 살아봐야 깨닫게 된다. 정말 싸게 나온 물건이라는 복덕방의 소개에 부모님이 어렵사리 보태주신 3천만 원

으로 전세계약을 하였다.

◆ 2004년. 옥탑방 전세 3천만 원. <스물하나, 속은 듯한 가격>

바퀴벌레와 꿈등이는 덤

작열하는 태양, 살을 에는 추위. 이게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다. 좀 덥고 추울 거라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남도에서 자란 A’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어차피 한참 뜨거운 시간에는 학교 작업실에서 지내니 여름에는 견딜 만 했다. 그래도 한참 북쪽의 서울이 남도보다 더 무더운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제는 겨울. 벽체가 전혀 단열을 하지 못하니 보일러를 적당히 틀면 한기가 가시지 않는다. 11월에는 멋모르고 난방을 돌렸다가 눈이 의심스런 고지서를 받아보기도 했다. 그리고 혹한에 수도관이 터지고 보일러가 고장 나는 불상사도 겪게 되었다.

하지만 A는 자신의 처지가 그나마 호사스런 것이라 여겼다. 고향친구인 ‘용감한 K’는 고시원에서 산다. 면학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름에 어떤 곳인지 살짝 들려본 후 A는 K가 측은해졌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좁은, 방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공간들, 옆방에서 볼펜으로 무슨 글자를 쓰는지도 알아챌 수 있을 것만 같은 허술한 간이벽, 수십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욕실과 화장실, 지은 지 오래되어 그런지 건물 전체에 퍼져 있는 알 듯 모를 듯한 이상한 냄새. 그리고 왼쪽 책상 사이에서 스멀스멀 기어 오르는 시커먼 물체. 자세히 보니 바퀴벌레였다. “이런 건 집에서도 보는 건데 뭐. 이상한 거도 있어. 등이 굽은 귀뚜라미 같은데 울지는 않던데?” 라는 씩씩한 답이 오히려 애처로웠다. 등이 굽은 그것이 꿈등이라는 건 몇 년 후 연가시를 알게 되면서 같이 알게 되었다.

‘한 달에 25만원이나 내고 이런 곳에 살아야 하나?’ K에게 보증금 5백만 원 정도가 있으면 월세 25만원의 자취방을 구할 수 있었다. 보증금을 1천만 원 정도 들이면 작은 원룸에 월세 사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돈을 구하기 어려운 K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침침한 복도를 나서며 무심결에 돌아본, 희미한 조명 아래 번호 달린 암갈색 문들이 즐지어 있던 광경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 2004년. 고시원 월 25만 원. <스물하나, 바퀴벌레와 친구 맺는 가격>

싸구려 커피만 속이 쓰린 건 아니다

“글쎄, 보증금 어떻게 마련해보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봐야 반지하 정도 얻을 수 있지 않나? W있잖아. 개는 반지하 살거든. 작년 장마철에 침수되서 크게 고생했 다더라. 곰팡이도 장난이 아니고. 항상 축축하고 눅눅하고. 지난번에 한 번 놀러갔는 데 비닐장판에 발바닥이 찍 달라붙었다 떨어지는 게 좀 그렇던데.” 장기하의 노래 를 들으면 가끔 K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깔끔한 W’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 자주 보지 못했는데, 몇 년 지난 후 결핵으로 고생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별이 들지 않는 습한 반지하에 살던 게 원인이었을까도 모르겠다.

물론 주변에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친구들도 많았다. 기억에 남는 건 ‘나름 지방 유지의 자손 F’인데 학교 근처 오피스텔에 살았다. 10평 쯤 되는 곳이었는데 전세 7천만 원이라고 들었던 거 같다. ‘풀옵션, 도시가스, 개별난방, 복층구조, 탁 트인 전망의 이중창.’이라는 1층 부동산중개업소의 광고 글에 정말 살짝 부럽다고 생각 했다. 그런데 빨래는 어디에 널지? F의 오피스텔에는 빨래를 널만한 곳이 없던 거 같다. 그리고 관리비가 한 달에 25만 원. K가 살던 고시원 비용.

그나마 집안 형편이 괜찮았던 친구들은 대체로 전세 4~5천만 원 수준의 4평 쯤 되는 원룸에 살고 있었던 것이 생각난다. 비슷한 원룸을 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 4~5 십만 원씩 내면서 사는 친구들도 있었다. 바퀴벌레나 꼬등이, 눅눅한 장판이 싫으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가격이었다. 그 친구들의 속도 쓰리긴 마찬가지 아니었 을까?

📌 2004년. 원룸 보증금 5백만/월세 40만. <스물하나, 깨끗한 거 바라면 이 정도는 내>

삶이 조여 오다

오늘도 작업실에서 밤을 꼬박 지센 ‘초췌한 A’는 초조하다. 이번에도 지난 학기와 같은 성적표를 받아들면 장학금은 고사하고 학자금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다른 친구 들은 교수들 맘에 드는 작품 내서 성적 올리느니 차라리 취업을 위해서 그럴듯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A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다. 이 미 방을 구하면서 적지 않은 부담을 드린 터라 부모님에게 더 이상 의지하기도 쉽지 않다.

처음 450만 원이었던 한 학기 등록금은 3학년이 되면서 500만 원으로 올랐다. 등록 금 외에도 실습재료비가 한 학기에 100만 원은 든다. 방학 내내 알바를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이니 굶고 살아도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다. 결국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막히면 한 학기 다니고 1년 휴학하는 식으로 버틸 수밖에 없다. 이미 2학년 2학기를 앞두고 1년 간 휴학을 하고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를 앞두고 다시 휴학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요즘 집세 많이 오른 거 알지? 전세금 올려줘야겠는데?” “얼마나요?” “시세 찾아보면 알겠지만 천만 원은 올려야지. 근데 다른 사람 다시 들이면 복비, 수리비 들고 하니 200정도 빼줄게.” “...” 이미 지난 학기 학비와 생활비로 모아 둔 돈을 거의 써버린 터라 전세금을 올려줄 여력이 없다. 주변에 이사할 집을 찾아보니 정말 많이 올랐다. 전세 3천만 원으로는 W가 살던 녹녹한 방 정도나 얻을 수 있을까? 결국 다달이 10만 원의 월세를 내는 반전세로 돌렸다.

📌 2006년. 옥탑방 보증금 3천만/월세 10만. <스물셋.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가격>

어떻게든, 살아지겠지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그나마 복된 A’ 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애초에 집에서 보증금을 보태줄 여력이 없었던 친구들은 고시원을 전전하거나 50~60만 원이나 하는 월세를 부담하기 위해 밤낮없이 알바를 해야 했다. 좋지 않은 경기상황으로 인해 일자리 찾기도 점점 어려워졌다. 졸업 후 취업을 못한 선배들과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는 형국이라 상황은 더 나빠지기만 했다.

신용카드 돌려막기는 기본이고 사채와 다를 바 없는 이율의 대출에 의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당장 방세도 내고 먹고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받을 들인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억지로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다.

A가 3학년 2학기를 앞두고 복학했을 때 과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직 4학년이었던 동기 ‘낭만적인 B’ 와 2년 선배 ‘흔치 않은 H’ 의 열애에 이은 결혼이었다. 양가 모두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던 터라 우려와 만류가 적지 않았을 텐데 둘은 과감하게 결행했다. 88만 원 세대라 불리며 연애조차 힘겨워하던 우리에게 다소의 놀라움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진한 의문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과연 B다웠다.

“모아둔 돈 있어.” H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 의외였다. 그리고 신혼을 학교 앞

4평짜리 원룸에 차렸다. 보증금 500백에 월세 50만 원. 그럼 그렇지. 여러모로 싱거운 H. 하지만 혼례를 치른 후 5개월째에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원룸의 신희생활은 우리의 상상에 곱하기 100을 한만큼 괴로워졌다고 한다.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매일 새벽 뭘니까? 당신들은 양심도 없어요? 어떻게 원룸에서 애를 키울 생각을 해요? 지금 집 울리는 거 봐요. 내일 일찍 나가야 하는데 환장하겠네, 정말.” 최대한 순화한 옆집의 반응이다. 사과로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문 두드리는 소리만 들려도 신경이 곤두서는 지경이었다고 한다. 다행스럽게 B와 H의 고행은 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째에 조금 나아졌다. 보다 못한 외가에서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다. 빨리 학업을 끝내고 자리를 잡아야 생이별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의외인 H’는 졸업을 얼마 앞두고 중견 디자인회사에 취직이 되었다. 부창부수라더니 얼마 있다가 B는 중견 출판사에 취직이 되었다. 1년 후 B와 H는 인근 시세의 70%에 공급하는 신희부부용 장기전세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다. ‘여러모로 혼치 않은 H’는 10년 이상 가입한 청약예금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를 두고 있는 게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디자인계통의 낮은 임금 또한 가점이 된 결과였다. 전세보증금 1억2천만 원은 약간의 전세대출, 그 동안 아껴 모은 돈, 이제는 많이 누그러워진 양가 부모의 도움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7년째 장기전세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B와 H는 한 달에 300만 원 조금 넘게 벌지만 큰 어려움 없이 애 둘을 잘 키우고 있다.

◆ 2010년. 장기전세임대주택 전세 1억2천만 원. <스물일곱, 스물아홉, 나라가 도운 가격>

…그리고 빛이 생겼다

이제 4학년을 앞둔 ‘절박한 A’는 이미 4번의 휴학을 하여 더 이상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휴학을 할 수 없었다. 어차피 취업을 위해 포트폴리오도 마련하고 학점도 보충하기 위해서는 휴학이다 알바도 하면서 보내기도 어렵다. 어느덧 스물일곱, 적지 않은 나이에 드디어 진퇴양난, 첩첩산중, 사면초가에 직면하였다.

등록금은 대학생 내내 A를 외면했던 학자금대출을 받게 되면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부모의 소득이 점점 줄어든 씹쓸함과 목숨 걸고 올린 성적의 결과였다. 당장의 급박함은 넘겼으나 졸업 후 3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천만 원을 훌쩍 넘는 빛이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방을 빼고 보증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게 되었다. 다행히 기숙사 생활을 통해 절친이 된 G의 집에 월세를 절반 부담하는 조건으로 같이 살기로 하면서 집도 당분간은 해결할 수 있었다. 월세 30만 원, 생활비 월 15만 원, 졸업작품전을 비롯한 포트폴리오 제작비 월 평균 25만 원. 이런 식으로 1년을 지내고 나니 원래 3천만 원이었던 보증금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 2010년. 홈쉐어 월 30만 원 <스물일곱, 친구와 같이 하니, 부담이 줄어들었네?>

서른의 일상, 악순환

졸업을 하니 이미 스물여덟 살. 청춘의 종착에 점점 다가가는 ‘음울한 A’는 몇 년 지나면 취직을 꿈꾸기 어려운 상황인데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구직난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집도 다시 구해야 했다. G가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보증금 2천만 원으로 예전에 살던 옥탑방과 같은 집을 구하려니 월세가 60만 원이나 들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해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규칙적으로 지인을 통해 생기는 일감과 틈틈이 알바를 통해 모을 수 있는 한 달 별이는 평균 90만 원 남짓. 월세 60만 원과 공과금 등 이리저리 나가는 15만 원을 제하고 남는 1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20대 후반 취업적령기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결국 서른 살을 넘기고 말았다. 학자금대출을 갚고 나니 부모님이 보태주셨던 3천만 원 중 남아있는 게 800만 원 남짓에 불과했다. 서른을 넘기고부터는 알바자리 구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다. 이미 20대의 체력도 사라졌다. 아는 선배 학원에서 임시강사로 일하고, 닥치는 대로 일감을 받아다 철야작업을 해도 매달 몇 만 원씩 적자가 생기는 삶이 계속되었다. 세상은 A가 속한 세대를 3포니 5포니 하면서 사회문제라고 떠들고 있었다.

보증금 5백만 원에 월세 55만 원인 반지하를 거쳐 월세 45만 원의 샤워부스가 딸려 있는 2평짜리 고시원에 살게 된 서른한 살. K가 기거하던 누추하고 비좁은 그 고시원은 아니라고 애써 위안을 삼아보지만, 무심코 돌아본 고시원 복도는 여전히 음울했다.

📌 2014년. 샤워부스 딸린 고시원 월 45만 원. <서른하나, 우울하고, 희망도 안보이고...>



그곳에 있다

‘...발코니는 여기에 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실로 연결되고..., 음. 이쪽에 화분을 두면 되겠네. 식탁은 여기에 두고..., 음. 그러면 음식 나르기가 번거로운가? 그럼 이쪽으로 옮기고..., 공부방은 어디에 둘까? 여기는 주방과 너무 가까운가?...’
“열심히네. 잘 되가?” G가 생긋 웃으며 생각을 깨운다.

‘여전히 발랄한 G’는 지금 ‘주택협동조합 M’의 이사장이고, A는 발기인이자 조합원이다. 디자인 짬 한다는 이유로 A가 3호 집의 기본구상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내는 월세를 따져보면 수조 원이 될걸요? 그중 1천분의 1만 모아도 우리들을 위한 새로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협동조합 설립총회에서 G가 한 말이다. 아이디어는 간단하고 명쾌하다. 청년들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자신들의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것이다. 경영학을 전공한 G, 미대 나온 A, 건축하는 C, 철학과 P,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O, 회사 다니는 T 등 각양각색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 힘을 보태어 협동조합을 꾸려가고 있다.

‘10여 년 전 집에서 보태준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 2년 전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A는 대학입학 이후의 생활을 더듬어 보았다. 답은 이외로 명확했다. 그 대부분은 결국 A에게 집을 임대한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간 셈이다. 수많은 청춘이 밤잠을 희생하고 모은 돈이 집을 가진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인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니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는 G의 제안에 선뜻 응할 수 있었다.

물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비싼 토지로 이루어진 도시에서 청년들의 힘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총회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M은 이미 2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2호 주택에 A의 방이 있다. 조합에 출자한 돈은 5백만 원, 월 이용료는 30만 원. 아주 저렴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2.5평의 방을 사용하는 대가로 비싸다고만 볼 수도 없다. 무엇보다 M에 내는 월 이용료는 누군가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아직 M만의 힘으로 집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하여 수백 명의 조합원들에게 언제 짬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부동산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다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비영리목적의 주택사업에 불리함이 가중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될 일. 지금 이 시간에도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 손을 놓지 않는 한 ‘미래의 A’가 다시 음울할 일은 없을 거 같다.

🍷 2016년. 출자금 5백만 원. 월 이용료 30만 원. <서른셋, 손에 손 맞잡고>



2016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6년 5월 19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고용,노동	1/7	노동개혁, 노동자는 없고 기업만 있다	송민정
고용,노동	1/12	노동시장, 유연화보다 소비확대가 우선이다	새사연 노동경제팀
주거	1/15	2016 부동산 시장은 '위험한 균형' 유지할 것	권순형
정치	1/18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손우정
농업	1/25	농업의 지속가능성, '쌀' 과 '소득' 에 있다	장경호
주거	1/29	2016년에 대한 기대, 사회주택 활성화의 원년	강세진
복지	2/1	갈등의 복지, 불평등에 '응답하라'	최정은
고용,노동	2/5	지표와 정책으로 본 청년 고용의 현황과 과제	송민정
미디어	2/12	'사이비' 로 불리는 인터넷 매체, 본질은 '여론 통제' 다	김시연
잇:북	2/18	2016 전망보고서	새사연 미디어센터
주거	2/25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세진
복지	3/14	1인 가구, '전 연령' 의 문제다	최정은
주거	3/18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① :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들여다보기	황서연, 진남영
주거	4/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② : 영미권 임차인관리협동조합 염탐하기	황서연, 진남영
사회적 경제	4/11	민주주의의 풀뿌리, 마을공론의 형성 과정	강세진
주거	4/15	개발이익 확대로는 청년임대주택은 공급 '불가능'	권순형
청년	4/18	청년은 청춘(靑春)이어야 한다	송민정
주거	4/22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차인들의 협동조합 ③ :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되려면?	황서연, 진남영
경제	4/29	한국경제 : 1%를 위한 자본주의	정승일
청년	5/2	소득과 지출로 본 청년의 현재와 미래	최정은
청년	5/19	시골청년 상경분투기	강세진